

“평생을 그림에 미쳐 열심히, 많이 그렸다”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 갖는 오승우 화백



‘백두산’

“그림에 미쳐 살았어요. 그저 열심히 많이 그렸을 뿐이에요.”

2일 오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앞두고 만난 노(老)화가가는 미술 인생을 돌아보며 겸손한 모습부터 보였다. 생존자가 중 호남 유일의 예술원 회원이자 한국 구상미술 거목 오승우(85) 화백이다.

한국 현대 서양화단을 개척한 고(故)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장남인 오승우 화백은 동생인 고(故) 오승운(1939~2006) 화백과 함께 미술 일가(一家)를 이뤘다. 두 아들 병욱, 상욱씨도 각각 서양화와 조각을 전공했다.

2일부터 4월27일까지 시립미술관 1·2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 화백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지난 1996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승우 100산 초대전’이 열린 적은 있지만 모든 작품을 망라해 전시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오 화백은 “이번 전시는 초대전이지만 사실상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전이기도 하다”며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작품도 있어 마치 이산가족을 상봉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출품작은 모두 60여점. 특히 이중 50여점은 오 화백이 마지막까지 소장하며 아끼던 작품 중에서 직접 엄선했다. 19살이던 1949년 광주 양림동 풍경을 그린 ‘신록’부터 2009년작 ‘십장생 no.273’까지 60년 세월을 함께한 작품들이다.

전시는 오 화백 60여년 여정을 따라 ‘전통과 미’, ‘한국의 100산’, ‘동양의 원형’, ‘십장생도’, ‘나와 세계’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오 화백은 ‘전통과 미’에 걸린 1960년 제9회 국전 특선작 ‘금강계단-통도사’(1960)를 보며 고향에 사로잡혔다.

“군대를 갔다오고 제3회 국전에 도전했어요. 몇년 쉬긴 했지만 여정을 적부터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릴 듣고 자랐으니 제가 진짜 잘 그리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낙선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생각을 했죠.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낮에는 석고 데생을 했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시작했죠.”

절치부심한 그는 1955년 제4회 국전 입선을 시작으로 1957~60년 4년 연속 특선을 하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당시 구레, 전복 김제, 충북 보은, 경남 양산

등 전국 사찰에서 한달씩 머물며 그린 작품들이다.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였던 시절,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한국 전통미를 화폭에 담았다.

그는 1975년 약 1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렀다. 오 화백은 당시를 떠올리며 “가는 곳마다 대작들이 걸려 있으니 처음엔 기가 죽었다”며 “아무리 그려봐도 그들을 쫓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주체나 소재에서 한국적 특성을 담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십장생 등 한국 전통문화나 자연 환경 등을 캔버스에 옮겼다. 이전 전시에서 선보이는 ‘100산’ 시리즈도 이런 연유로 시작했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 130여개 산을 직접 오르고 그린 작품이다.

오 화백은 전시 작품 중 ‘백두산’(1991)을 대표작으로 꼽았다.

“백두산을 직접 가보니 왜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지 한번에 알겠더라고요. 자주 가보질 못하니 머리 속 잔상이 사라지기 전에 정신없이 그렸던 기억이 나요.”

1950년대 한국 전통미를 탐미했던 오 화백은 1990년대에는 동양으로 대상을 넓힌다. 주제 ‘동양의 원형’에서는 지난 1996년 중국에서 1년간 머물며 그린 작품 등이 전시된다.

“화가는 독서 등을 통해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제가 눈이 안좋으니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죠. 대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세상을 배우고 지혜를 기웠죠.”

오 화백은 화가로서 치명적인 시력 저하와 안구 장애를 극복했다. 그가 항상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자화상’(1993)은 안구 수술 직후 눈에 붓대를 붙인 모습이다. ‘처의 상’(1963)은 항상 꼭 붙어 다니는 아내 정금애(84) 여사에 대한 사랑을 담았다. 오 화백은 2000년도 이후에는 ‘십장생’ 시리즈를 선보였다.

그는 끝으로 고향 화순군 동북면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동북은 선조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고장이예요. 선진개서도 항상 고향을 생각했죠. 고향에 지역 미술가들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편 시립미술관은 이날 ‘오승우전’ 개막에 앞서 화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화순 출신 미술작가 조명·연구사업,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등이다. 문의 062-613-7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지호 화백 장남...구상미술 거목
2일~4월27일...60년 화업 총정리
생애·작품세계별 작품 60여점 출품

“
국전 낙선 후 기초부터 다시 그림 공부
눈 안좋아 책 대신 여행으로 안목 키워
”



‘처의 상’

인생의 봄날을 꿈꾸는 사람들

‘팻족’ 1000만 시대 반려동물 조명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에닝샹 3월호



요즘 들어 부쩍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늘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치열한 생존 경쟁, 불안한 미래가 주는 중압감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느새 계절은 봄의 문턱에 다가와 있다.

예향 3월호는 특집으로 ‘봄날이 온다’를 마련했다. 인생의 봄을 꿈꾸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들과 남녘에서 들려오는 꽃소식을 소개한다. 또한 전문가에게 배우는 새봄 홈스타일링 센스와 요리사 3인의 봄맞 가득한 나물요리도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기획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팻족’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조명했다. 1인 가구와 핵가족이 늘면서 동물은 키우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이 되었다.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의 실태와 2조원대로 성장한 반려동물 산업의 현주소도 들여다봤다.

‘예향 초대석’은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6좌를 오른 산악인 엄홍길을 부우리 16좌를 오른 산악인 엄홍길을 소개한다. 최근에는 영화 ‘히말라야’로 2005년 그의 ‘초모험가 휴먼원정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네팔 어린이를 위한 학교 16개를 세우는 ‘인생 17좌’를 오르는 엄 대장을 만나 그의 산(山) 인생 스토리를 들었다.

‘사람이 브랜드다’에서는 불우한 시대를 살아가는 화가 이종섭의 삶과 예술을 조명했다.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예술의 열정을 불태웠던 이종섭의 삶은 관광의 섬 제주를 품격 있는 문화의 섬으로 바꿨다. 제주 브랜드가

된 이종섭의 예술 인생을 들여다봤다. ‘남도의 장인들’에서는 나무에 장인의 혼을 새기는 악기장 이준수 씨를 만났다. ‘문화 화제’에서는 평범한 이웃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나 이들이 추구하고 즐기는 음악 이야기를 들었다.

남도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는 ‘남도美美樂’에서는 일찍이 돌 문화를 꽃피웠던 화순의 유적지와 비경들, 힐링 푸드를 매개로 한 축제, 온후한 토질에서 출토된 재료를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무각사 이해리 개인전

3월~29일 로터스갤러리



‘피인’

이해리 작가가 ‘나를 내려놓는 밤’을 주제로 3일부터 29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2016년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돼 두번째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국화를 그리는 이씨는 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희망을 키워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 ‘고요한 행복’ 속 여인은 작가 본인이자 우리네 모습이다.

또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하얀 새는 어두운 화면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향 세계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2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우수상(2010)을 수상했으며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선복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에닝샹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3월호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시작의 봄, 춘풍에 실려온 문화향기

새봄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 남녘에서 달려오는 꽃 소식

기획

노승훈의 꿈의 여행③: 풍경의 조각보 완성하는 마을들 캐나다 노바스코샤

정윤수의 스포츠 인사이드⑥: 시민의 대변자 리그에 도전한 세계 스포츠 영웅들

전남의 미래, 다도해를 가다②-원도 1

265개의 섬, 장정해역 완도 다시마, 툇, 전복의 생산왕국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팻팸(pet+family)’ 천만시대 풍경 팻산업 시장규모 2조원대

예향 초대석

‘히말라야와의 약속’ 지키는 산악인 엄홍길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

남도의 장인들

나무에 새겨낸 장인의 혼 악기장 이준수

사람이 브랜드다

그리움에 찬 천재의 뜨거운 화폭 제주 서귀포 & 화가 이종섭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담양에 우표박물관 연 나상국, 이진하 부부 세계 길거리음식 전문점 낸 안길원, 강지은 ‘KIA’의 중심 꿈꾸는 원숭이미 ‘호랑이 군단’

문화 화제

문학계 숙원 ‘문학진흥법’ 통과 “문학이 제자리 잡는 계기될길”

문화 화제

행복을 연주하는 평범한 이들의 특별한 오케스트라

화제의 전시

디지털 감수성이 부러진 詩心 SNS시인시대전

남도美美樂

힐링의 고을 화순

스타 데이트

“언제든 치열하고 끝없는 자기 교백” tvN 예능 ‘배우학교’로 5년만에 복귀한 박신양